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공약 실행을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 등 핵심 공약 4건에 대한 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의 테마별 선양 사업을 비롯해 내장저수지 주변을 생태 공원으로 힐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안건으로 올랐다.

참석한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시는 이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4분기 긴급
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고창소방서는 지난 20일 고창읍 소재 '고창00고령자아파트'에서 2025년 4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요인으로 인한 아파트 화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지휘차·구조차·펌프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대원 40명이 동원돼 실전과 같은 긴박한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통제단 가동절차, 현장지휘 체계 확립, 구조·구급·진압의 유기적 협업 등 재난 초기 대응역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각 기능별 역할 숙지와 상황전파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예고 없는 불시훈련은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니어 의사'가 지키는 농촌 건강

정읍시, 지방시대 엑스포서 우수 사례 발표... '지역 주치의 제도 시행'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5)'에서 정읍시가 농촌 의료의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 시컨벤션센터 내 '기본사회 전시관'을 운영하며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주치의 제도가 어떻게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이 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등이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 지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Basic Society)' 구현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려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시가 소개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역 주치의 제도'는 농촌 의료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노동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모델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기본사회 야고라'에서는 정읍시의 사례가 전국 5개 우수 지자체 사례 중 하나로 선정돼 발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현실적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 성과를 공유하며 관중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화수 시장은 "지방시대의 진정한 균형은 지역 스스로 기본사회를 구현할 때 완성된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채용 주치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 기본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구감소 위기 극복 공동 대응 협약 체결

부안군·부안우체국,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캠페인 전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0일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극복 캠페인 활동을 전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안사랑 주소갯기 실천운동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제도 및



부안 푸드앤레포츠센터 개장

부안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 부안 푸드앤레포츠센터 개장식을 열고 군민 누구나 먹거리·여가·체육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완성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출하농가, 기관·단체 관계자 등 군민 다수가 참석해 센터 개장을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안 푸드앤레포츠센터는 2021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올

해 준공됐으며 1층에는 로컬푸드직매장과 18레인 규모의 반다비 볼링장 2층에는 파머스 카페로 조성해 상설 로컬푸드 매장·생활체육 공간·가족형 여가시설을 결합한 부안 최고의 융·복합 문화거점으로서 군민은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지역 농업인들은 땅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제값 받는 공정한 유통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4년간 임시 직매장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입증해

전북사랑도민 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우체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정착·전입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선옥 우체국장은 "부안우체국은 2021년 12월부터 군과 함께 지역 생산자와 전국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지원 채널을 우체국소방물을 통해 구축해 왔다"며 "최근 누적 판매액 100여억원을 돌파했고 특히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창업(귀농·귀어) 및 노인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노인상품 판매에 집중해 총 126개의 일자리에 40여억원의 소득향상을 지원해 왔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왔다.

2021년 20여 농가가 참여해 9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현재까지 행복장터와 이커머스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누적 매출 250억원, 600여 농가 참여, 누적 방문객 54만 명이라는 뛰어난 성장세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부안 대표 로컬푸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 내 반다비 볼링장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조성돼 포용과 소통의 상징이며 모두의 부안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운곡람사르습지' 위상 과시

고창군, 8년 연속 전북 생태관광지 시군평가 '최우수'

전북 고창군의 운곡람사르습지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생태관광지 시·군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그 위상을 과시했다.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는 생태관광지 부문 S등급을 받았으며, 삼천리길·천리길 부문에서도 고창군이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군은 주민협의체인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토요장터, 생태방산, 습지생태교육, 마을함머니 해설사 반딧불이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진공모전, 사진전시회, 습지 방문 인증 SNS 이벤트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전 인식을 높였다. 군은 2015년부터 탐방로 정비, 개울



복원,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마을 조성 등 체계적인 생태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운곡람사르습지센터 신축과 국가생태탐방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탐방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생태관광지와 삼천리길·천리길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읍시가 제출한 1조2,35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안전심사는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톨보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26년 정기분 정읍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어, 서향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서·행

동특성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안'과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 제조업 기업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 후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고,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본심사하며,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기금 및 예산안 등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동의안·조례안 등 3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감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참사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도 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의 지연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도30호선(보안~진서) 구간 도로를 신속히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촉구하였다.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장 김광수)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반복민원 근본 개선 및 협업체계 관리 △군민 갈등 대응·매뉴얼 마련 △예산 이월·불용 문제 △수소도시 투자 대비 실적 불투명 등을 얘기하며 시정·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태)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